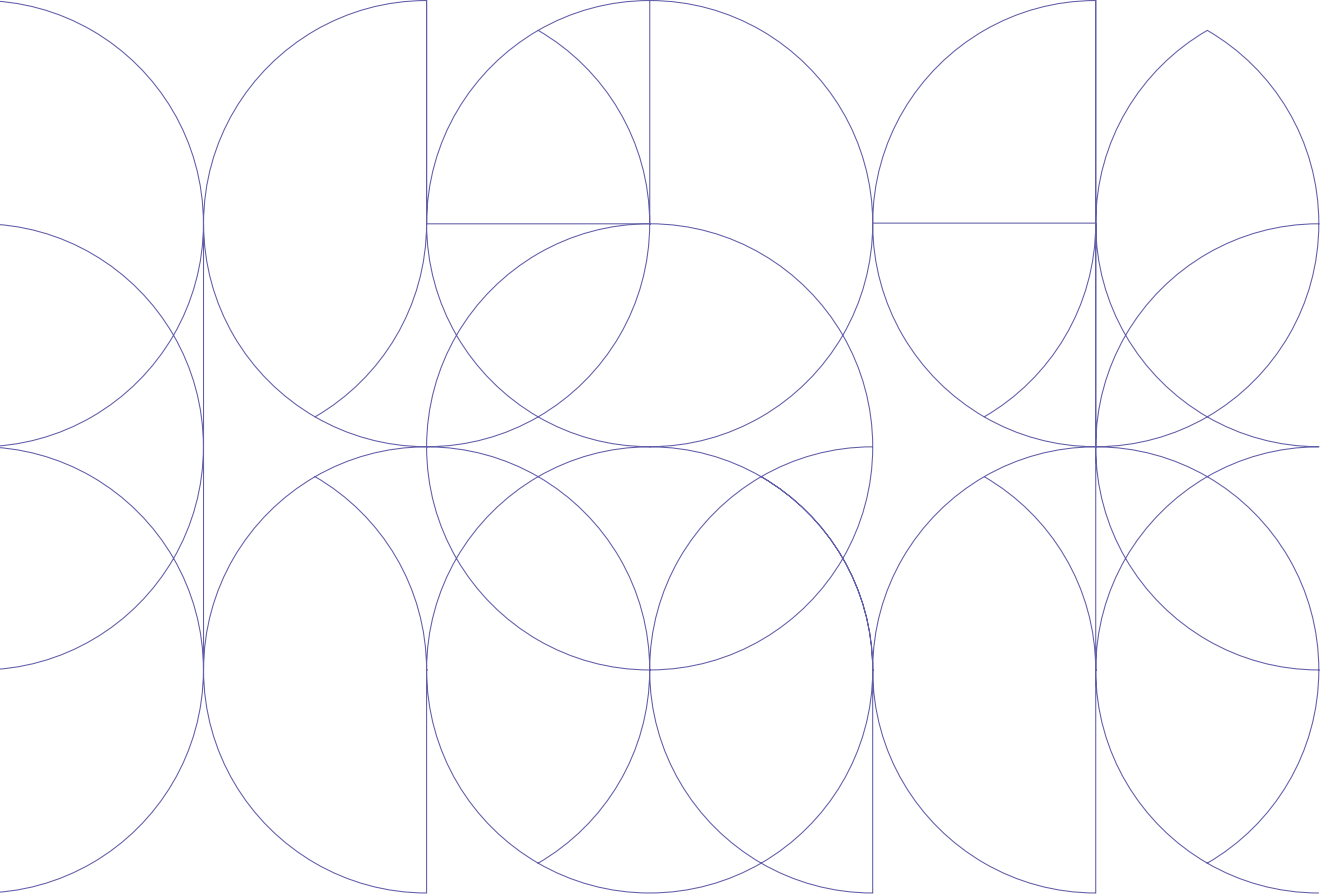


KBS S.O. 828th

2026. 7. 9.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K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plus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바게나르 J. Wagenaar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작품 23 Cyrano de Bergerac Overture, Op. 23	⌚ 14'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63 Violin Concerto No. 2 in g minor, Op. 63	⌚ 26'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고 활기차게 II. Andante assai 매우 여유롭고 노래하듯이 III. Allegro, ben marcato 빠르고 리듬을 선명하게 강조하며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교향적 무곡, 작품 45 Symphonic Dances, Op. 45	⌚ 35'
	I. Non allegro 빠르지 않게 II. Andante con moto (Tempo di valse) 움직임을 갖고 느리게, 왈츠의 속도로 III. Lento assai - Allegro vivace 매우 느리게 시작하여, 빠르고 활기차게	

- ✧ 총 소요시간: 100분
-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안토니 헤르무스

안토니 헤르무스는 음악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닌 지휘자이자, 연주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내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극적인 감각, 선율에 대한 탁월한 감수성, 그리고 명료한 해석은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는 2026년 여름까지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하며, 이번 시즌 한국에서 예정된 5회의 투어 공연을 비롯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브뤼셀 보자르에서의 연주를 이끈다. 네덜란드 음악계의 핵심 인물로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레지던티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방송교향악단, 로테르담 필하모닉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모든 주요 오케스트라를 정기적으로 지휘한다. 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네덜란드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이제는 종신 명예지휘자로서 현재 진행 중인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말러 사이클)에서 말러 교향곡 8번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이번 시즌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슬랜드 필하모니아에 다시 초청되었으며, 바르셀로나 심포니와 보르도 아키텐 국립 오케스트라에서는 첫 지휘를 선보이고, <헨젤과 그레텔>의 새로운 프로덕션 지휘로 핀란드 국립오페라에 데뷔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오페라 노스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 시즌 부분무대화 형식(semi-staged)으로 선보인 <시몬 보카네그라>로 투어 공연과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공연에서 모두 5점 리뷰(최고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데사우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으며, 2015년 여름 자신의 첫 바그너 <반지> 사이클 지휘와 함께 임기를 마친 후 종신 명예지휘자에 임명되었다.

이번 시즌 헤르무스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닝 펑과 함께 브람스와 골드마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발매하였다. CPO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 그의 지난 음반들은 그간 외면 받아온 낭만주의 작곡가인 하우제거, 클루그하르트를 비롯해 헤르무스와 동향의 작곡가인 디펜브로크, 바게나르의 작품과 오베르의 오페라 <포르티치의 병어리 처녀(La Muette de Portici)>에 집중하고 있다.

안토니 헤르무스는 여섯 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였다. 그는 브라반트 음악원에서 자크 드 티에지에게 피아노를, 야크 판 스테인과 게오르크 프리취에게 지휘를 사사하였다. 차세대 음악가 양성에 열정적인 그는 암스테르담 음악원과 네덜란드 국립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과정의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와 영국 왕립 북부 음악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2025년에는 영국 북부 지역 음악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왕립 북부 음악대학에서 명예 펠로우에 임명되었다. 또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기 상임지휘자로 선임되어 2027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Antony Hermus, Conductor



바이올린 네만야 라두로비치

세르비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네만야 라두로비치는 독보적인 에너지와 솔직함, 전율적인 기교,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모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악의 힘을 증명해내고 있다. <베토펜: 바이올린 협주곡 & 크로이처 소나타> 앨범으로 2024년 ‘오푸스 클래식 어워드 협주곡 부문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라두로비치는 콘서트 무대를 자신의 “두 번째 집”이라고 표현한다. 과감한 시도와 즉흥성이 돋보이는 그의 대담한 해석은 매 공연을 전통과 실험정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킨다.

2025/2026 시즌에는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하는 에네스쿠 페스티벌 개막 공연에서 아람 하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이며, 마린 알습 지휘의 볼티모어 심포니 협연, 지휘자 제이미 마틴과 멜버른 심포니와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와 재회해 바르샤바 필하모닉에 복귀하고 호주와 일본에서 멜버른 심포니, 태즈매니아 심포니,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뒤 일본 전역에서 리사이틀 투어를 가지며 시즌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근 그는 뉴욕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피츠버그 심포니, 예테보리 심포니, 빈 방송교향악단, 시드니 심포니와 협연했으며, 자신의 앙상블 ‘더블 센스(Double Sens)’와 함께한 공연이 낭트의 라 폴 주르네 페스티벌, 오랑주 오페라 페스티벌(Chorégies d’Orange), 파리 필하모니, 상젤리제 극장,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모두 매진된 바 있다.

2015년 ‘에코 클래식 신인상’을 수상한 그는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음악의 승리상(Victoires de la Musique Classique)’에서 ‘올해의 연주자상’과 ‘국제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세르비아 니스 예술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ELLE 스타일 어워드 올해의 음악가상’을 수상하였다. 요제프 요하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크레모나 스트라디바리우스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의 수훈자로 선정되었다.

라두로비치는 실내악이 가진 친밀함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리사이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카네기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베를린 필하모니, 살 플레엘(Salle Pleyel), 상젤리제 극장, 아테네 메가론 콘서트홀, 산토리홀, 콜론 극장, 멜버른 리사이틀 센터 등 세계적 권위의 공연장에서 연주한 바 있다.

1985년 세르비아에서 태어난 라두로비치는 베오그라드 예술대학, 자르브뤼켄 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스타우퍼 아카데미에서 살바토레 아카르도를,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는 파트리스 폰타나로사를 사사하였다.

Nemanja Radulović,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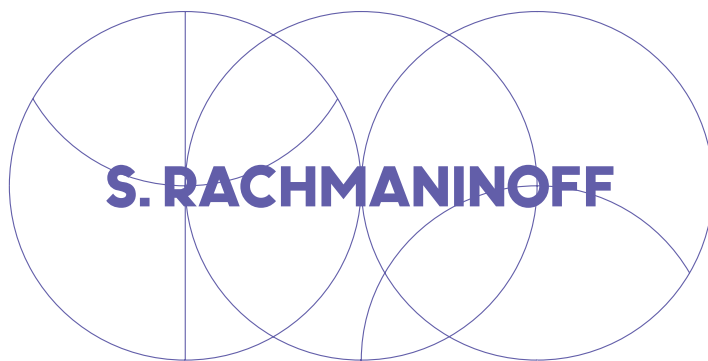


J. WAGENAAR



S. PROKOFIEV

오늘 공연은 네덜란드 출신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의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데뷔 무대다. 1부에서는 그의 조국 네덜란드 작곡가 바게나르의 대표작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으로 시작해 ‘21세기의 파가니니’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네만야 라두로비치가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을 선보인다. 이 곡은 20세기 명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가 즐겨 연주하며 더욱 알려졌는데, 라두로비치의 강렬한 개성과 만나 새롭게 펼쳐질 무대가 기대된다.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장대한 스케일과 다채로운 색감을 잘 드러내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선보인다. 본래 발레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으나 발레 공연이 무산되며 관현악곡으로 발표되었고, 대편성 관현악곡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안토니 헤르무스의 지휘로 듣는 <교향적 무곡>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게나르 /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작품 23

J. Wagenaar / Cyrano de Bergerac Overture, Op. 23

작곡 1905년
초연 1905년 2월 18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편성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현5부
연주시간 약 14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Utrecht)는 리스트 콩쿠르와 고음악 페스티벌로 유명한 음악의 도시다. 이 도시가 낳은 음악인들 중에는 전설의 지휘 거장 빌럼 멩엘베르흐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재닌 얀센 등이 있다. 작곡가 중에는 요한 바게나르(Johan Wagenaar, 1862~1941)가 위트레흐트 출신이다. 그는 화려하고 극적인 관현악곡을 썼던 네덜란드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다. 바게나르는 생전 ‘네덜란드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로 불리며, 네덜란드 음악계의 위상을 높였다. 귀족 가문의 사생아로 태어나 가난을 겪었고 13세가 되어서야 정식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888년부터 위트레흐트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했고, 1919년부터 1937년까지 헤이그 왕립음악원장을 역임하며 교육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전통적인 낭만주의 음악어법을 고수했던 그는 베를리오즈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색채감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관현악곡을 남겼다. 그가 1905년 작곡한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은 교향시 <사울과 다윗(Saul en David)>, <말괄량이 길들이기(De getemde feeks) 서곡> 등과 더불어 바게나르를 대표하는 관현악곡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로부터 영향 받은 영웅적 캐릭터의 극적 서사가 눈에 띄는 이 작품은 1942년 멩엘베르흐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첫 레코딩 이후 널리 알려졌다.

서곡의 원작인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Cyrano de Bergerac)>는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Edmond Rostand, 1868~1918)이 쓴 희곡이다. 주인공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1619~1655)는 17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다. 뛰어난 검객이기도 했던 그는 기형적으로 큰 코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사촌 록산을 사랑하지만 록산은 잘 생긴 크리스티앙과 사랑에 빠지고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을 대신해 시와 편지를 대필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 1897년 파리의 포르트 생마르탱(Porte-Saint-Martin) 극장에서 초연된 연극의 내용은 실제 인물의 전기적 사실을 재현하지는 않지만 독특한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낭만적 사랑, 활극적 요소와 유머 등 대중적 흥행 코드를 따르고 있다. 이후 ‘시라노’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됐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프랑코 알파노의 동명의 오페라나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과 영화, 연극, 드라마, 극음악이 제작되고 있다.

바게나르의 서곡은 원작을 14분 가량의 관현악으로 압축한다. 그가 존경해 마지않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에서 사용된 구조와 어법의 영향이 보인다. 곡은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과 같은 활력 넘치는 상승도입부로 시작한다. 캐릭터의 낭만이 흘러넘치고 여유로운 현악이 서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 목관과 금관이 다양한 표정과 감각을 부각시키며 극적인 효과를 명징하게 제시한다.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63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 2 in g minor, Op. 63

작곡 1935년
초연 1935년 12월 1일, 스페인 마드리드
편성 독주 바이올린,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서스펜디드심벌,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현5부
연주시간 약 26분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63은 1935년 탄생했다. 근대적인 화성과 리듬 속에서도 선율은 서정성이 풍부하고 로맨틱해서 차이콥스키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3악장에서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경쾌하고 톡 쏘는 듯한 매력이 조화를 이룬다.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대담한 그로테스크함보다는 낭만주의 전통에 더 기대고 있다. 야샤 하이페츠가 모노럴 시대와 스테레오 시대에 한 번씩 녹음해 이 곡을 널리 알렸다.

1930년대에 소련에서 성공을 거두고 고국을 그리워하던 프로코피예프는 그 무렵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로베르 소에탕스와 유럽 각지를 돌며 연주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프로코피예프는 소에탕스의 후원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는 소에탕스가 1년간 독점으로 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써달라고 의뢰했다. 프로코피예프의 1932년작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 56>의 프랑스 초연 역시 소에탕스가 폴란드 출신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사무엘 두쉬킨과 함께 했었는데 이 연주에 대단히 만족했던 프로코피예프는 이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감사의 뜻도 담아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기로 했다.

나중에 프로코피예프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의 1악장 주제부는 파리에서 썼고, 2악장 제1주제는 러시아의 보로네슈에서, 관현악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마무리했으며 초연은 마드리드에서 했습니다. 정처 없는 연주여행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I. Allegro moderato

1악장은 바이올린의 무반주 독주로 시작하여 애조 띤 러시아풍 선율과 우아하고 정열적인 두 번째 주제가 교차하며 매력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II. Andante assai

느린 악장인 2악장은 바이올린의 우아한 선율이 피우는 꽃을 보는 듯하다. 관현악의 몽환적인 반주 위로 바이올린이 비상하듯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아리아를 노래한다.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서와 일맥상통한다. 서두의 선율은 바이올린이 반주하는 첼로 독주의 악구에 다시 나타난다.

III. Allegro, ben marcato

3악장 론도 주제는 다분히 스페인을 연상시키는데, 캐스터네츠의 울림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난꾸러기 같은 리듬과 쫓고 쫓기는 듯한 극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작곡가 특유의 현대적인 풍자와 유머가 돋보인다.

1935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 모누멘탈 극장에서 로베르 소에탕스의 바이올린, 엔리케 알보스가 지휘하는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초연됐다.



라흐마니노프 / 교향적 무곡, 작품 45
S. Rachmaninoff / Symphonic Dances, Op. 45

작곡 1940년
초연 1940년 1월 3일, 미국 필라델피아
편성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클라리넷, 알토색소폰,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서스펜디드심벌,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탬버린, 탐탐, 글로켄슈필, 실로폰, 차임, 피아노,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35분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다. 1940년에 완성한 <교향적 무곡(Symphonic Dances)>은 라흐마니노프가 암으로 사망하기 전 마지막 작품으로 이른바 ‘백조의 노래’다. 라흐마니노프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작곡 기법을 집대성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작곡 당시 라흐마니노프는 몸이 아파 뉴욕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유진 오먼디의 권유로 쓰기 시작한 이 작품은 1941년 초연됐고, 오먼디에게 헌정됐다. 오케스트라 곡이지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도 존재하는데, 라흐마니노프 본인과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는 인류 최고의 피아노 거장 두 명이 초연했다.

라흐마니노프가 처음에 구상한 작품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다. 3악장 구성으로 된 '환상적 무곡'이 그 첫 단추였다. 악장별로 '정오', '황혼', '자정'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라흐마니노프는 '환상적'이라는 단어를 '교향적'이라는 말로 바꾸었다. 작품에 새겨진 시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의 극대화된 효과와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오늘날의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교향시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향곡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주제를 다루는 방식 면에서 교향곡에서의 전개와 발전, 재현을 담고 있어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기법을 보여준다. 화려한 화성의 사용, 섬세한 감각과 생동감 있는 리듬이 인상적인 걸작이다. 특히 알토 색소폰과 피아노, 다양한 타악기를 포함한 독특한 편성은 작품 특유의 색채감을 만들어낸다.

I. Non allegro

1악장에서는 알토색소폰 연주가 분위기를 이끈다, 하프, 피아노, 벨, 대규모 타악 파트가 총동원되는 등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웅장한 사운드를 낸다.

II. Andante con moto (Tempo di valse)

2악장은 경쾌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왈츠로 프랑스적 요소가 강하다.

III. Lento assai - Allegro vivace

스페인풍 열정이 넘치는 3악장에는 '진노의 날(Dies Irae)' 주제가 나온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노의 날' 후에는 작곡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러시아 성가곡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곡을 작곡한지 3년 후 라흐마니노프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작품은 남아 음악은 죽음을 초월해 불멸을 향해 선명히 펼쳐이는 깃발임을 웅변하고 있다.

글 |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지휘
정명훈
Conductor
Myung-Whun Chung

피아노
김세현
Piano
Saehyun Kim

2026.8.27.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 18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18

프로코피예프 /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레
S. Prokofiev / Excerpts from 'Romeo and Juliet' Suites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소재희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Torsten Janicke (전 뮌헨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악장)	클라리넷	Alessandro Beverari 수석
플루트	안명주 수석	호른	Nicolas Fleury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김효수 (주)효석 대표
매크로통상(주)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Prelude 권정숙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하나은행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섀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